

# 설립자 대표 이강희 의원님을 찾아서

일 시 : 1990년 12월 6일 오전 10시

장 소 : 인천항운 노조위원장실

탐방자 : 학생기자(A·B), 지도교사

다가올 서해안 시대. 기대에 부푼 2000년대를 설계하며 오로지 장래를 짚어질 세대에 꿈과 이상을 내걸고 학교발전에 힘쓰는 항운 노조 사무실은 어느덧 가을바람이 지나가고, 찬기운이 불어오는 초겨울을 마치 뜨거운 가슴과 열의로 밀어내듯이 아저씨들은 동분서주하면서도 분위기는 진지하기만 하였다. 학교에서 준비물을 챙겨가지고 10여 분 해안도로를 달려 항운노조 사무실에 들어서자 설립대표님은 친히 나오셔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지 안부 등을 묻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동편으로 햇빛이 잘 드는 집무실로 안내를 받았다. 그곳은 인천 지역사회 발전에 25여 년을 봉사하면서 우리나라 노동계에서 인정받는 해박한 이론과 풍부한 체험의 산실처럼 한눈에 보였다.

기자 A :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즈음 대표님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대 표 : 불혹에서 지천명을 바라보는 현재 불혹 후반기에 염려되는 건강이야 아직은 최상의 상태이지요.

기자 B : 우리 인항학원 설립배경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 표 : 70년대에 국가적으로 어려웠고 많은 애환들이 국가부흥 초기에 우리

들을 나약하게, 그러나 어쩌면 민족을 강하게 만들었지요. 거슬러 보면, 한민족은 동족상잔의 쓰라림이 한이 되었고 일제 시기의 갖은 시련과 질곡에 면면히 이어 왔습니다. 국가부흥은 난제로 쌓여가고 경제에는 타개할 국면을 힘쓰고 있을 즈음 항구도시로써 부산보다는 작다고 하나 수도권외의 관문으로 수출·입의 역할을 다하는 인천은 요충지로써 중요성을 더해 갔습니다. 인천항의 발전은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서막이었고 그곳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항운 조합원이야말로 인천의 수많은 일꾼들 중에서도 가장 큰 보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겠지요. 20여 년전부터 한 푼 두 푼씩 모은 돈이 막대한 자금으로 결실을 맺어 무엇인가 해보자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안일하게 사회구조에 얻어지는 사업자체도 있었지만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조합원 아저씨들이 가장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겠는가? 다각적으로 연구 끝에, 그렇다! 육영사업이다! 우리가 세운 학교에서 인재가 배출되어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력개발하면 국력신장의 열쇠가 아니겠는가? 교육만이 유일한 자산이다 라는 일념으로 못배운 한을 장래 젊어질 세대들에게 라는 구호로써 고귀한 뜻을 행동으로 차근히 옮겨서 인항학원을 세우게 되었지요.

기자 B : 숭고함을 간직한 학교 설립의 일이 어떠한 점에서 어려웠습니까?

대 표 : 없는 자의 설움을 뼈저리게 겪어왔고 못배운 자의 고통과 애환을 온몸으로 느껴 온 그들과 뜨거운 가슴으로 뭉쳐서 그들의 얼굴에 희망과 웃음이 찾아올 그날을 위해 학교만을 구상하였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4천여 조합원들의 83.7% 의지와 교육위원회 사이에 어느 정도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으로 간주하기는 힘들지만 당시 시각은 노동조합이 무슨 육영사업을 하는가? 라는 식의 의문이 무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지와는 상반된 견해였기에 그동안 부풀은 고귀한 뜻은 위축되었으나 차근히 기관에 설립의 당위성이 설명되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학교부지의 감정을 받아내고, 설립인가를 얻지 못해서 애타고 있을 무렵, 인천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향후 활로와 교육계 신선한 충격으로 사학육성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었습니다. 정부기관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서, 진정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세계사에서 찾기 힘든 노동조합 단체가 인문학교를 건립한다는 주제로 신문에 기재되고 인천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교육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더군요. 설립인가가 나오고 토지금고에 학교부지를 배정받아 학교 교사를 기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구상보다 1년 늦게 개교하는 했지만 인항고등학교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세워갈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 가벼운 것이겠지요.



기자 A : 그러면 그 당시 지역사회의 여론은 어떠했습니까?

대 표 : 처음에는 노동조합도 학교를 세우는가? 라는 의문이 많았고 제가 인항학원 설립을 하면서 노조 대표로서 수행해 나감에도 서로를 질시하는 내용 즉, 조합원들의 뜻을 무시한 무책임한 언행을 겪었지만 각종 대중매체와 향운노조 기관지에 홍보를 해서 관심을 기울인 분들이 많아지자, 일부 시민들이 소리높여 이야기해서 다수처럼 느껴지던 우려의 소리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승임한 일을 한다는 격려를 받을

때마다 커다란 힘이 솟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성원해 주셨던 것이 고맙습니다.

기자 B :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 표 : 우리 향운 노조 조합원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토지개발공사 김수학 이사장님과 인천 이사장님이 도와주셨고, 건학에서 개교까지 정열을 쏟으신 이사분들, 당정 교육담당관, 민병준 교감님을 천거하신 단국대 금동신 교수님도 계시고, (어조를 바꾸시면서) 그 때 교수님의 추천으로 광성중학교에 근무하신 교감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 우리 인향학교에 대한 기사를 신문이나 기관지에서 오려 스크랩을 하셨더군요. 신철 학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성완 교장 선생님을 천거해 주신 교육위원회 김천홍 전 교육감님은 생전에 인향개교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자 A : 인향생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대 표 : 뭐, 당부한다기보다는 본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학업에 몰두하고 건장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으로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간이 되어야 겠고, 이번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는 시점에서 졸업생들은 자기가 선택한 진로에 열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자 B : 앞으로 학교에 대한 구상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 표 : 91년도 2월에는 학교 체육관 및 대강당의 건립 기공을 하겠고 내년부터는 씨름부가 창단되어 우리 고유전통의 민속씨름을 통해서 항상 신선하고 생동감있게 활기찬 분위기로 남자다운 씩씩한 기상을 키우는 학교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둘째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수급을 넉넉히 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고 선생님들의 편의를 도모해야죠. 셋째는 선배가 없는 취약성은 2만여 명의 노조조합원 가족 자제들과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한마당이 되어 극복하고,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내지는 기능대학을 설립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교는 인문고교이지만 기능과 함께 육성해서 자기적성에 맞는 진로를 제시해주고, 선지원제 학교로 지정받아서 인천시내 명실공히 명문학교로 발돋움해야 겠고 남녀공학으로 남자 고등학교가 지니는 취약성을 극복해야 겠지요. 이것은 결코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으며 하나하나 차곡차곡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성실히 지원을 아끼지 않으렵니다.



기자 A :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인생관 또는 좌우명으로 인항인에게 도움말을 주십시오.

대 표 : 거창할 필요없이 정직하게 살자 라는 말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성현, 철학자들이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듯이 '정직'은 고결한 것입니다. 군대 전역 후, 근로자 단체에 투신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시절에 젊다는 혈기로 일해왔던 노동의 신성한 기쁨. 노동의 중요성이야말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정직이겠지요. 우리 노조 조합원들은 이런 의미에서 노동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요즈음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안일하게 살려는 풍조가 있고, 쉽게 산다는 이유로 선망하는 사람들이 있음은 가끔씩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학교교육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겠지만 성실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직이야말로 제가 믿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기자 B : 아쉬움이 남지만 대표님의 긴 시간 동안의 도움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더욱 대변해 주시고 지체 건강에 삼가 유념하십시오. 학교발전에 신명을 다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